

Global Markets Monitor

Global Strategy 김예슬 02) 6915-5526 / chchu93@ibks.com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유가 상승이 부담스러운 이유

미·이란 갈등 장기화, 유가 상승 압력 지속

미·이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의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WTI는 6월 말 69.5달러에서 9월 8일 기준 94달러 수준까지 높아졌다. 중동 지역의 공급 차질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EIA 역시 유가 및 미국 휘발유 가격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EIA가 발표한 8월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브렌트유 평균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87달러로 미국 소매 휘발유 가격 전망치를 3.78달러로 이전 전망치보다 각각 6.1%, 3.8% 상향 조정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미국 소비자의 부담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전략비축유(SPR) 방출을 통해 공급 충격과 유가 상승에 대응해왔다. 지난 3월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공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1.72억 배럴 규모의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 그러나 방출이 지속되면서 잔여 물량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와 유사한 속도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잔여 물량은 10월 말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략비축유 방출을 통한 유가 상방 완충 효과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개발에 미국이 직접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활용해 전략비축유를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베네수엘라의 낮아진 생산 능력과 노후화된 인프라를 고려한다면 베네수엘라 원유를 이용한 재충전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고유가 부담은 공화당에 더 불리하다

실질 휘발유 가격 상승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미국 대통령 지지율은 휘발유 가격 상승기에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가격 수준이 낮은 구간에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때 지지율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율은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의 하원 성적과도 밀접한 관계를 보여왔다. 역사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치러진 중간선거일수록 집권당의 하원 의석 손실이 크게 나타났으며, 2018년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선거를 앞둔 지지율이 약 40%에 머문 가운데 공화당은 하원에서 41석을 잃었다. 결국 휘발유 가격 상승이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을 주고, 낮아진 지지율이 다시 집권당의 중간선거 성적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고유가 부담이 공화당 지역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체감될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Brookings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표하는 지역구 주민의 평균 차량 주행거리는 민주당 지역구보다 약 26% 긴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이용거리가 길수록 휘발유 가격 변화가 가계의 연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같은 폭의 가격 상승이라도 공화당 지역구 유권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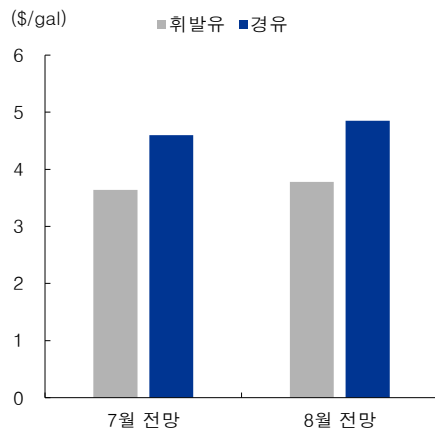
따라서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높은 휘발유 가격은 공화당에 우호적인 변수가 아니다. 휘발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평균 차량 주행거리가 긴 공화당 지역구의 체감 비용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를 앞둔 공화당에는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 WT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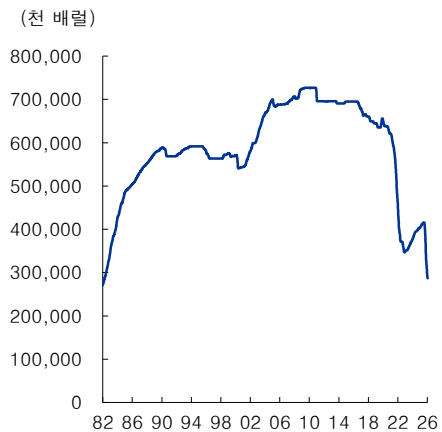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2. 휘발유 및 경유 연평균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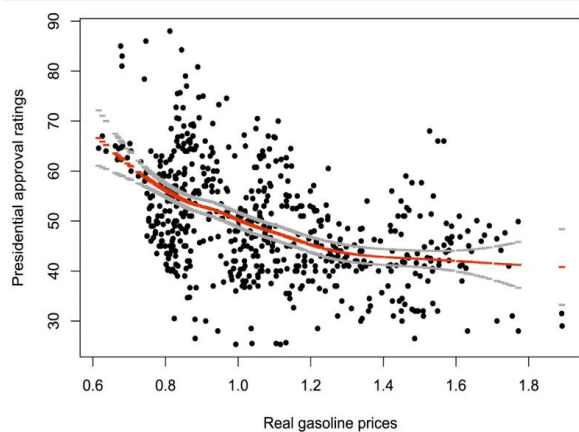
자료: EIA, IBK투자증권

그림 3. 미국 전략비축유(SPR) 재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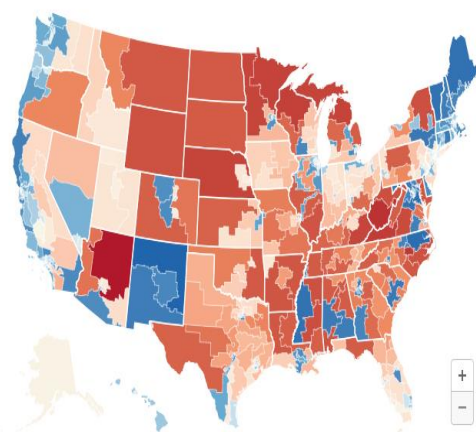
자료: EIA, IBK투자증권

그림 4. 실질 휘발유 가격과 대통령 지지율 간 관계



자료: Gupta et al. (2025), IBK투자증권

그림 5. 하원 선거구별 1인당 연평균 차량 주행거리



자료: Brookings, IBK투자증권

표 1. 지지율에 따른 중간선거 결과

대통령	중간선거	지지율	하원 의석 증감	대통령	중간선거	지지율	하원 의석 증감
G.H.W. Bush	1990	74	-8	Johnson	1966	46	-48
Kennedy	1962	67	-4	Obama	2010	45	-64
G.W. Bush	2002	66	+8	Reagan	1982	42	-25
Eisenhower	1954	63	-18	Carter	1978	42	-15
Clinton	1998	63	+5	Trump	2018	40	-41
Reagan	1986	61	-5	Obama	2014	40	-13
Eisenhower	1958	57	-48	Biden	2022	40	-9
Nixon	1970	55	-12	G.W. Bush	2006	39	-30

자료: 언론, IBK투자증권